

# 서울시민의 근린환경 만족도와 보행환경이 심리건강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연구

The Effects of Neighborhood and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n Happiness

: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Health among Seoul Residents

이 세 규\*

Se Kyu Lee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스트레스 및 행복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도시환경의 질적 요소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총생산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근린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스트레스, 행복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린환경 만족도는 보행환경 만족도와 행복에 정(+)의 영향을, 스트레스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환경 만족도 또한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스트레스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근린환경은 보행환경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쾌적한 근린 및 보행환경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주민 행복 증진의 핵심 기반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녹지 접근성 확대, 공동체 기반 강화, 행복도시 정책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며, 도시환경을 행복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26. 4. 6. 심사기간: 2026. 4. 6. ~ 2026. 5. 26. 게재확정일: 2026. 5. 26.

□ 주제어: 근린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스트레스, 행복, 구조방정식모형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eighborhood environment, walk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health, and happiness, and investigates how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s influences residents' quality of lif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GDP-centered measures in capturing subjective well-be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hood satisfaction,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psychological health (stress), and happi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neighborhood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happiness, and a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lso significantly enhances happiness, whereas psychological health negatively influences happiness. In particular,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forms a multi-layered pathway affecting happiness by mediating both the walking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heal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well-designed neighborhood and walking environment contribute to stress redu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serving as key foundations for residents' happiness. Accordingl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edestrian-friendly urban design, improved access to green spaces, strengthened community capital, and integrated urban health policies, emphasizing the role of urban environments as core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well-being.

□ Keywords: Neighborhood Satisfaction,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Stress, Happi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I. 서론

현대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저하, 불평등 심화, 공동체 약화, 스트레스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국내총생산(GDP)은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소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건강, 환경,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지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의 초점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삶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의 지속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1974)은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일상적 환경과 경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근린환경은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녹지와 같은 환경적 자원, 그리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로 구성되는 일상적 생활 기반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생활만족도, 지역사회 정체성 형성, 공동체적 연대감 등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Leyden, 2003). 보행환경 또한 단순한 이동 인프라를 넘어 안전성, 연결성, 쾌적성과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 및 일상 경험의 질을 매개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평가된다(Montgomery, 2014).

환경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적·쾌적한 물리환경이 인지적 피로를 회복시키는 주의회복 이론(Kaplan, 1995)과 환경 노출이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스트레스 회복이론(Ulrich, 1991)을 통해 환경-심리-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가 이론화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개별 환경 요소의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심리적 경험을 매개하여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고밀도·고복잡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즉, 서울은 지역 간 생활환경의 질적 격차, 보행 인프라의 불균형, 주거·상업·교통 기능의 고밀한 집적 등 복합적 도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공간 경험에 상당한 차이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수준, 정서적 안정성, 행복감 등 심리·정서적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 연구는 주로 광역 단위의 거시적 지표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소득, 연령, 학력, 고용 상태 등)에 집중해 왔으며, 생활권 단위의 미시적 환경 요인이 서울시민의 심리적 경험과 행복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환경-심리-행복의 매개적 관계를 검증하려는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생활환경 만족, 보행환경 경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행복에 이르는지를 종합적인 경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의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시민의 심리적 경험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구조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심 분석을 넘어, 대도시 생활환경의 질이 시민 행복을 결정하는 구조적 영향을 밝히고, 서울시 정책 환경에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시민을 대상으로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설정하며,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시가 수행한 2024년 「서울서베이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민의 전반적 행복 수준과 함께 도시생활·주거, 건강·보건, 환경, 교통, 문화·여가 등 사회지표와 보육, 문화환경, 교통환경, 보행환경으로 구성된 BSC 지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시민이 인지하는 생활환경과 행복 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린환경 및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 요인과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 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관찰변수와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2024 서울서베이조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후 검증된 잠재변수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생활환경, 심리건강,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와 직접·간접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이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수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 도시환경과 주관적 행복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 발전 수준은 오랫동안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이러한 지표는 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행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가가 행복의 지속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경제적 풍요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보여주며,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Easterlin, 1974). 이후 OECD와 UN 등 국제기구들은 소득뿐 아니라 건강, 환경,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 중심의 평가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물리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 경험과 정서적 만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Glaeser, 2001; Montgomery, 2014).

행복은 단일한 감정이 아닌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이해되며, 주관적 안녕감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이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구성되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다(Diener, 1984). 또한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을 설명하는 욕구단계이론은 생활환경이 행복 형성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Maslow, 1943). 최근 연구는 행복의 결정요인을 개인 수준에서 지역 환경으로 확장하며,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삶의 질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Vemuri & Costanza, 2006; Florida, 2008). 특히 근린환경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주거 편의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녹지, 안전성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심리 안정과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을 매개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영빈·정창무, 2013).

#### 1) 근린환경 만족도와 보행환경 만족도

근린환경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 인접 공간을 의미하며, 주택을 포함하여 공원, 학교, 상업시설, 공공서비스, 교통시설 등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일 뿐 아니라, 주민 간 상호작용과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기반으로 기능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근린환경을 주거환경의 질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루며, 접근성, 다양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한다. 이러한 근린 환경의 질은 거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Putnam, 2000; 윤혜정·이재열, 2017).

보행환경은 근린환경 내에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간적 경험으로, 보행로의 연속성, 안전성, 경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보행은 도시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러한 경험은 환경 인식과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행환경의 질은 개별 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토지이용 혼합, 시설 접근성, 경관 등 근린 차원의 환경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Appleyard, 1981; Ewing & Handy, 2009). 국내 연구에서도 근린시설 접근성, 녹지, 공공서비스 수준 등이 보행환경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효숙·이경환, 2019; 이경환·안건혁, 2008).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은 모두 일상적 생활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구성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범위와 기능적 초점에서 구별하며 다음과 같다. 근린환경은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녹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안전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공간적·사회적 자원의 종합적 특성을 의미하며(Diez Roux, 2001), 주민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자본, 신체·스트레스 등 광범위한 삶의 질 요인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된다(Lee & Moudon, 2004).

반면 보행환경은 보도 폭, 연결성, 교통체계, 보행안전, 경관 및 쾌적성 등 이동 중심의 미시적 물리환경을 가리키며(Ewing & Handy, 2009), 보행 활동, 신체활동 수준, 보행자의 정서적 안정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aadat et al., 2021). 즉, 근린환경이 생활권 단위의 포괄적 환경 여건을 포함한다면, 보행환경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근린환경 만족도가 보행환경 만족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근린환경이 보행 경험의 질을 규정하는 구조적 기반임을 시사한다.

## 2) 보행환경과 심리건강

환경심리학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정서와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도시환경에서의 소음, 혼잡, 오염, 범죄 불안 등은 지속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주의회복이론은 자연환경과 쾌적한 환경이 정신적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며(Kaplan, 1995), 스트레스 회복이론은 녹지와 자연경관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Ulrich, 1991). 국내 연구에서도 근린환경의 질과 스트레스 수준 간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생활환경의 불편과 위험 요인은 동기 좌절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Lee, 2004), 근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보고되었다(김용진·안건혁, 2011).

보행환경 역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 Montgomery(2014)는 보행 친화적 도시 구조가 스트레스 감소와 행복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이 신체활동 증가와 스트레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Dannenberg 외, 2011). 이러한 연구들은 근린환경과 보행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건강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3) 심리건강과 행복

심리건강은 개인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일상에 적응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것을 넘어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관계 속 심리적 균형을 포함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행복 연구에서는 심리건강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며, 주관적 안녕감에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경험이 중요한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Diener, 1984). 심리적 안녕을 자아수용, 긍정적 인간관계, 삶의 목적, 환경 통제, 개인적 성장, 자율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며(Ryff, 1989), 이는 개인이 삶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은 심리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녹지 공간, 공공공간, 보행 친화적 환경 등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artig et al., 2014). 근린환경의 안정성, 안전한 생활환경, 공동체적 관계는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며, 범죄,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 등은 심리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적 관계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이 높게 나타난다(Helliwell & Putnam, 2004). 이처럼 심리건강은 개인 행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 환경과 행복 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 변수로 설정하여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4) 근린환경 만족도와 행복

근린환경 만족도는 주민의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행복경제학에서는 지역 환경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tutzer & Frey, 2008),

도시의 문화적·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창의성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되었다(Florida, 2008).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공원,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근린 기반시설 접근성이 주민 행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빈·정창무, 2013; 윤혜정·이재열, 2017).

보행환경 또한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 도시환경 요소로 평가된다. 보행친화적 환경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Leyden, 2003). 보행 가능한 도시 구조는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며(Speck, 2012), 보행 활동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장기적 행복 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White et al., 2017).

## 2. 연구가설

상기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근린환경 만족도가 보행환경 만족도, 스트레스,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생활권 기반 환경요인이 주민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보행환경 만족도가 심리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행친화적 도시환경이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근린환경 및 보행환경이 심리적 상태를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심리-행복의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심리건강을 매개변수로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생활환경 중심의 행복 연구를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정책 수립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1-1: 근린환경 만족도는 보행환경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근린환경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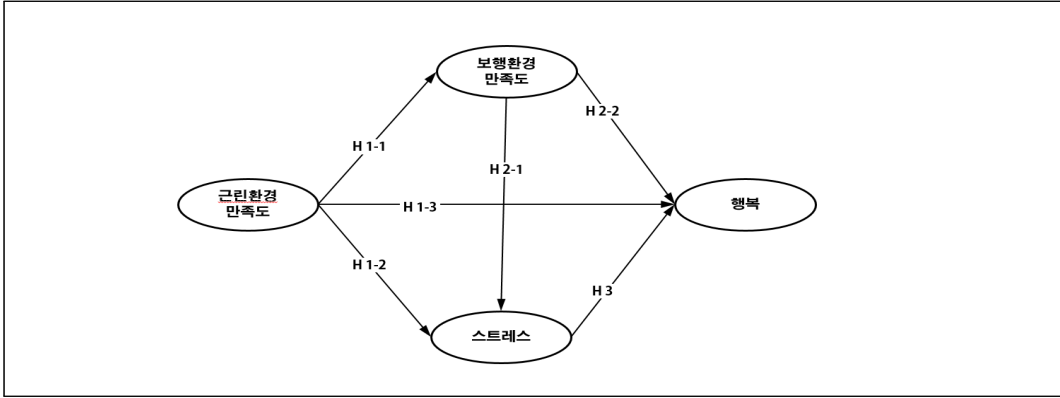
*H1-3: 근린환경 만족도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보행환경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보행환경 만족도는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트레스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Ⅲ. 연구설계

#### 1. 분석자료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24 서울서베이 조사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024 서울서베이는 2003년 이후 매년 서울시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설문응답자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도시생활·주거, 건강·보건, 안전·재난, 환경, 교통, 문화·여가, 교육·돌봄, 가치·의식 등 총 10개 분야를 포괄한다.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표본은 36,280명이었으며, 가구 단위 기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69\%$ 로 산출되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수집된 2024 서울서베이 자료는 서울시민의 근린환경 및 보행환경, 심리건강과 행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표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 설문 문항

구 분	설문내용	비고
근린환경 만족도	Q13A1 - 동네_건기	5점 척도
	Q13A2 - 동네_장보기	
	Q13A3 - 동네_편의시설	
	Q13A4 - 동네_안전	
보행환경 만족도	Q18A1 - 보행환경_주거지역	5점 척도
	Q18A2 - 보행환경_서울시내	
스트레스	Q34 - 지난 2주일 간의 일상생활_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5점 척도
행복	Q61A1 - 행복점수_자신의 건강상태	10점 척도
	Q61A2 - 행복점수_자신의 재정상태	
	Q61A3 - 행복점수_주의 친지, 친구와의 관계	
	Q61A4 - 행복점수_가정생활	
	Q61A5 - 행복점수_사회생활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주거유형, 가족관계, 거주지역(자치구), 직업, 등	

## 2. 분석자료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총 36,28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 응답자 48.0%, 여성 응답자 52.0%로 여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10대가 5.6%, 20~30대 31.5%, 40~50대 33.9%, 60대 이상 29.0%로 조사되었다. 최종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 10.5%, 고졸 30.1%, 대졸 58.5%, 대학원 이상 0.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 유형은 관리·전문직 7.3%, 화이트칼라 35.1%, 블루칼라 23.8%, 기타 33.9%였으며, 월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 40.3%, 200~400만 원 23.8%, 401~600만 원 17.3%, 601~800만 원 13.2%, 800만 원 이상 4.8%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송파구 6.8%, 강서구 6.0%, 관악·노원·강남구 각 5.4%, 은평구 5.0%, 종로구 1.5%, 중구 1.3%였다.

응답자 특성을 종합하면,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20~50대가 전체의 65.4%를 차지하였다. 가구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40.0%였으며, 이는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 직종이 42.4%를 차지하고, 대졸 이상 학력자가 59.4%로 높은 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도심권 5.1%, 동북권 31.0%, 서북권 12.2%, 서남권 30.7%, 동남권 21.0%로 분포하였다(표 3 참조).

〈표 2〉 설문표본특성(N=36,280)

구분	항목	응답빈도	퍼센트	구분	항목	응답빈도	퍼센트
성별	남	17,291	48.0	지역별	종로구	965	1.5
	여	18,989	52.0		중구	726	1.3
	합계	36,280	100.0		용산구	983	2.3
연령	10대	1,088	5.6		성동구	1,339	3.0
	20대	2,599	14.9		광진구	1,407	3.7
	30대	7,026	16.6		동대문구	1,325	3.7
	40대	6,477	16.5		중랑구	1,522	4.1
	50대	6,765	17.4		성북구	1,644	4.6
	60대 이상	12,325	29.0		강북구	1,273	3.1
	합계	36,280	100.0		도봉구	1,246	3.3
학력	중학교 이하	2,879	10.5		노원구	1,731	5.4
	고졸 이하	11,953	30.1		은평구	1,589	5.0
	대졸 이하	21,112	58.5		서대문구	1,352	3.4
	대학원 이상	336	0.9		마포구	1,526	3.9
	합계	36,280	100.0		양천구	1,667	4.5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3,393	56.4		강서구	1,917	6.0
	미혼	7,941	30.8		구로구	1,492	4.2
	이혼/별거/사별	9,871	12.9		금천구	1,109	2.5
	합계	36,280	100.0		영등포구	1,433	4.0
	소득	200만 원 미만	78		40.3	동작구	1,606
200만~400만 원		46	23.8		관악구	1,738	5.4
400만~600만 원		33	17.3	서초구	1,403	4.1	
600만~800만 원		26	13.2	강남구	1,775	5.4	
800원 이상		9	4.8	송파구	1,902	6.8	
합계		36,280	100.0	강동구	1,610	4.8	
직업	관리 전문직	2,723	7.3	합계	36,280	100.0	
	화이트 칼라	13,434	35.1	관리 전문직	2,723	7.3	
	블루 칼라	9,109	23.8	화이트 칼라	13,434	35.1	
	기타	11,014	33.9	블루 칼라	9,109	23.8	
	합계	36,280	100.0	기타	11,014	33.9	

이와 같은 표본 특성은 연구 대상의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및 거주권역을 포괄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근린환경 만족도를 보행환경 만족도와 심리건강을 매개로 행복 간 영향관계 검증에 적합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분석결과

### 1.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였다. 신뢰성 검증에 앞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크론바흐 알파는 내적 일관성 검증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각 측정항목이 단일 요인을 먼저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린환경 만족도 0.760, 보행환경 만족도 0.500, 행복 0.857로 모두 기준치 0.500의 경계값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주성분 방법에 따른 요인추출 결과 각 잠재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단일차원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충분하며 0.6 이상이면 적정 수준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근린환경 만족도 0.721, 보행환경 만족도 0.613, 행복 0.887로 모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신뢰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어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Validity)은 관찰변수가 정확히 개념을 반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용타당성과 구성타당성으로 구분된다.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기존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현장 지식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설문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관찰변수가 잠재개념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잠재요인과 관찰변수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념신뢰도(CR) 값이 0.7 이상이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근린환경 만족도 0.997, 보행환경 만족도 0.994, 행복 0.997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분산추출지수(AVE)를 활용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각 잠재요인의 AVE 값이 다른 잠재요인과의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큰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모든 잠재요인의 AVE가 상관계수 제곱보다 커 판별타당성 역시 충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성, 신뢰성, 내용타당성,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SEM을 활용한 연구가설의 영향관계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표 3〉 신뢰성·타당성 검증결과

잠재요인	요인분석(CFA)					신뢰성			판별타당성		
	KMO	Bartlett's test	고유치	설명분산 비율	요인수	크론바흐 알파계수	개념 신뢰도	AVE (분산추출지수)	상관관계 (AVE)	$r^2$	유무
근린환경 만족도	0.760	$\chi^2=26456.121$ df=6 Sig.=0.000	2.184	54.598	1	0.721	0.997	0.990	행복 (0.722)	0.521	○
보행환경 만족도	0.500	$\chi^2=6376.699$ df=1 Sig.=0.000	1.401	70.074	1	0.613	0.994	0.989	행복 (0.740)	0.548	○
행복	0.857	$\chi^2=76173.751$ df=10 Sig.=0.000	3.184	63.684	1	0.857	0.997	0.984	보행환경 (0.672)	0.452	○

## 2. 연구가설 검증결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연관성 분석에 앞서, 분석자료에 대한 잠재요인 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CFA)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근린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스트레스’, ‘행복’으로 설정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성 평가는 단순 카이제곱 검정뿐 아니라 RMSEA, GFI, AGFI, NFI, CFI, RFI, IFI, TLI 등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chi^2=3069.498$ (df=41, n=36,280, p<0.001), RMSEA=0.045, NFI=0.975, RFI=0.966, IFI=0.975, TLI=0.967, CFI=0.975로 적합성을 충족하였다.

각 잠재요인의 관찰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AMOS에서 제공하는 C.R.(Critical Ratio)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C.R. 값이 2.58을 상회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모형에서 가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구조모형 적합도 역시  $\chi^2=3889.436$ (df=49, n=36,280, p<0.001), RMSEA=0.046, NFI=0.968, RFI=0.957, IFI=0.969, TLI=0.958, CFI=0.969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근린환경 만족도는 보행환경 만족도에 0.592, 심리건강에는 -0.027, 행복에는 0.08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행환경 만족도는 행복에 0.320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심리건강에는 0.007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건강은 행복에 -0.046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심리적 안정과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도시환경 개선 정책 설계에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표 4〉 관찰변수 및 연구가설 분석결과

구분	관찰 변수	비표준화 요인값	표준화 요인값	표준 오차	C.R.		p값		
근린환경 만족도	X1	1.000	0.841	-	-	-	-		
	X2	1.193	0.642	0.013	90.657	***			
	X3	1.047	0.659	0.013	83.467	***			
	X4	1.068	0.632	0.012	88.511	***			
보행환경 만족도	Y1	1.000	0.689	-	-	-	-		
	Y2	0.897	0.583	0.016	56.723	***			
행복	Z1	1.000	0.628	-	-	-	-		
	Z2	1.105	0.687	0.010	107.232	***			
	Z3	1.332	0.810	0.011	120.378	***			
	Z4	1.231	0.750	0.011	114.425	***			
	Z5	1.322	0.808	0.011	120.176	***			
구조모형의 연구가설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p값	비 고
H1	H1-1	근린환경 만족도 ⇒ 보행환경 만족도		0.578	0.592	0.011	52.327	***	채택
	H1-2	근린환경 만족도 ⇒ 스트레스		-0.050	-0.027	0.019	-2.687	0.007	채택
	H1-3	근린환경 만족도 ⇒ 행복		0.161	0.087	0.019	8.692	***	채택
H2	H2-1	보행환경 만족도 ⇒ 스트레스		0.014	0.007	0.018	0.817	0.414	기각
	H2-2	보행환경 만족도 ⇒ 행복		0.742	0.320	0.019	39.100	***	채택
H3	스트레스 ⇒ 행복		-0.045	-0.046	0.005	-8.785	***	채택	

주1: \*\*\* p<0.01, \*\* p<0.05, \* p<0.1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린환경 만족도가 보행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0.592$ 로 나타났다. 근린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  $\beta=-0.022$ , 간접효과  $\beta=-0.005$ , 총효과  $\beta=-0.027$ 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린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0.087$ , 총효과  $\beta=0.087$ 로 나타났다.

보행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0.003$ , 간접효과  $\beta=0.004$ , 총효과는  $\beta=0.007$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행환경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  $\beta=0.087$ , 간접효과  $\beta=0.233$ , 총효과  $\beta=0.320$ 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beta=-0.046$ 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표 5〉 직접효과·간접효과·총효과의 검증결과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H1	H1-1	근린환경 만족도 ⇒ 보행환경 만족도	0.592	-	0.592***
	H1-2	근린환경 만족도 ⇒ 스트레스	-0.022	-0.005	-0.027***
	H1-3	근린환경 만족도 ⇒ 행복	0.087	-	0.087***
H2	H2-1	보행환경 만족도 ⇒ 스트레스	0.003	0.004	0.007
	H2-2	보행환경 만족도 ⇒ 행복	0.087	0.233	0.320***
H3		스트레스 ⇒ 행복	-0.046	-	-0.046***

## V. 결론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도시환경이 주민 행복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 행복 연구 및 도시환경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첫째, 근린환경·보행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행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1974)과, 건강·환경·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다차원적 삶의 질을 강조해 온 국제적 평가체계(OECD, UN)의 흐름을 뒷받침한다. 즉, 도시환경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설명 변수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둘째, 근린환경 만족도가 보행환경을 매개로 행복에 이르는 경로( $\beta=0.592 \rightarrow 0.320$ )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의 일상경험, 심리 안정, 정서적 안녕을 형성한다는 기존 연구(Glaeser, 2001; Montgomery, 2014)의 이론적 주장과 일치한다. 근린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주민의 행동, 정서,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주관적 행복이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질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심리학적 접근(Diener, 1984)과도 부합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 $\beta=-0.27; -0.046$ ), 그로 인해 행복이 제고되는 구조는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과 환경 심리적 회복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Maslow, 1943; Kaplan, 1995; Ulrich, 1991)을 실증적으로 확장한다. 즉,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은 부정정서를 완화하고, 이는 다시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행복 연구의 분석 단위를 개인의 심리·경제적 특성에서 생활권 기반의 환경적 요인으로 확장해야 함을 이론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가 물리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주민의 정서적 만족, 심리적 안정, 일상생활의 질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째, 생활권 보행환경의 종합적 개선이 핵심 전략이다. 서울시의 '보행일상권(N분 도시)' 개념과 연계하면, 보행의 안전성·연속성·쾌적성을 강화하는 완전도로 도입, 보행 네트워크 연결,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비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기반 인프라가 된다. 특히 2026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서 보행 약자를 중심으로 안전망을 확장하는 방향은 정서적 안정과 이동권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근린환경 및 녹지 접근성의 질적 향상은 생활권 만족과 심리적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소규모 녹지 확충, 소공원과 그린네트워크 조성, 동네 숲길 정비는 '집에서 가까운 휴식환경'을 강화하여 부정정서를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이는 보행일상권에서 강조하는 "생활권 안에서의 여가·문화 접근성 확보"와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셋째, 사회적 신뢰와 주민 공동체 자본 강화가 필수적이다.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시설 운영, 마을 프로그램 활성화, 투명한 공공행정은 지역 내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취약계층의 고립을 완화한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강조하는 '사회적 연결 지원'과 맞물려, 근린환경 만족과 행복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넷째, 심리건강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도시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권 기반 정서지원 서비스, 긍정정서 증진 프로그램, 자연·보행·건강을 연계한 통합 정책은 환경 취약계층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일상의 전반적 안정감을 높인다. 이는 신체·정서·환경을 아우르는 복합적 건강도시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종합하면, 보행친화성·근린환경 쾌적성·사회적 신뢰가 상호 강화되는 구조를 생활권 단위에서 제도화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서울의 행복정책 구현의 핵심이다. 이는 본 연구의 실증 결과가 밝힌 "도시환경의 질이 시민 행복의 기반 인프라로 작동한다"는 결론과 일치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일상권 구축, 보행약자 보호 강화, 생활권 중심 도시관리의 정책기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이다. 첫째, 분석 단위와 자료 특성의 제한이다. 자치구 단위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세부 생활권 수준의 환경 특성이나 장기적 변화 추적이 어려웠다. 둘째, 심리적 요인 측정의 제약이다. 실측보다는 지각형식만의 설문 의존하여 심리·정서 상태와 생리적 반응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공간 단위, 종단 자료, 다차원적 지표를 활용하여 환경과 행복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주민의 심리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검증하여 행복도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 김용진·안건혁. (2011).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89-99.
- 김정호 (2008).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16(2), p.125-140
- 이경환·안건혁. (2008).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6), 293-302.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77-88.
- 박효숙·이경환. (2019). 근린환경이 노인들의 보행시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녹변동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4(2), 109-121.
- Dannenberg, A. L., Frumkin, H., & Jackson, R. J. (2011). Making healthy places: Designing and building for health,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Island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z Roux, A. V. (2001). Investigating neighborhood and area effects on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1), 1783-1789.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 A. David &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pp. 89-125). Academic Press.
- Ewing, R., & Handy, S. (2009). Measuring the unmeasurable: Urban design qualities. Journal of Urban Design, 14(1), 65-84.
- Hartig, T., Mitchell, R., de Vries, S., & Frumkin, H. (2014). Nature and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5, 207-228.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59(1449), 1435-1446.
- Izutsu T, Tsutsumi A, Minas H, Thornicroft G, Patel V, Ito A.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 J Ment Health Syst. 2015;2(12):1052-1054.
- Kaplan, S. (1995). The restorative benefits of n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 169-182.
- Keyes, C.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Lee, C., & Moudon, A. V. (2004). Physical activity and environment research in the health field: Implications for urban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9(2), 147-181.
- Leyden, K. (2003). Social capital and the built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46-1551.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cCormack, G. R., & Shiell, A. (2011). In search of causal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amo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8(1), 125.
- Montgomery, C. (2014). *Happy City: Transforming Our Lives Through Urban Design*. Penguin Books.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Stutzer, A., & Frey, B. (2008). Stress that doesn't pa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0(2), 339-366.
- White, M. P., Alcock, I., Wheeler, B. W., & Depledge, M. H. (2017). Would you be happier living in a greener urban area? A fixed-effects analysis of panel data. *Psychological Science*, 24(6), 920-928.

---

**이 세 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행동이 만족도와 관광활성화 연계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5), ESG 도시계획이 도시브랜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나주 빛가람혁신 도시를 대상으로(2024), 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빛가람혁신도시를 사례로(2024), 복합ESG지수를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시계열적 ESG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2024), ESG 복합지수와 영역별 ESG 지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2024) 등이 있다(sekyu102@daum.net).